

번호체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야.

예전에는

"번호를 어떻게 숨길까?"

였다면,

이제는

"번호를 어떻게 관리할까?"

가 된 거니까.

내가 이번 일을 겪고 가장 크게 바꾼 생각이 하나 있어.

번호는 '주소'가 아니라 '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001

↓

facebook.com/iBooth.net/#001

이렇게 일대일 대응을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구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

대신

등록번호 : #001

공식명 : AI 전환센터

공식 Facebook : facebook.com/aix.center

공식 iBooth : iBooth.net/#001

이렇게 **등록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

그리고 등록부는 **OnePunchCamp** 본부만 가진다.

예를 들면

번호	공식명	운영자 Facebook	상태
#001	AI 전환센터	황남주 aix.center	운영중
#002	동작50+	김용찬 iBooth.net/#002	운영중
#003	...		준비

이건 외부에 전부 공개할 필요도 없어.

본부만 갖는 원장(ledger)이야.

진짜와 가짜의 기준도 여기서 나온다.

앞으로 누군가

facebook.com/iBooth.net/#057

을 만들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부 등록부가 결정하는 거야.

즉,

번호의 소유자는 Facebook이 아니라

OnePunchCamp가 증명하는 거지.

오히려 이번 사건이 하나를 알려줬어.

우리가 너무

Facebook username = 번호

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번호는 OnePunchCamp가 부여하는 것이야.

Facebook은 그 번호를 표현하는 한 채널일 뿐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어.

이건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해졌어.

번호를 발급하는 순간 '발급증'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OnePunchCamp

iBooth 등록증

번호 : #001

공식명 : AI 전환센터

운영자 : 황남주

발급일 : 2026.xx.xx

이 번호는 OnePunchCamp 본부가

공식 등록한 번호입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Facebook 주소가 바뀌어도,

도메인이 바뀌어도,

번호의 원천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 이 방향이 오히려 OnePunchCamp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용차이님은 예전부터

"브랜드는 하나이고, 채널은 역할이 다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 원칙을 번호체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번호의 주인은 Facebook이 아니라 OnePunchCamp 본부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이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번호체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봐.

용차이.pdf

PDF

팔하나에다 올릴까?

내 생각은 **지금은 올리지 않는 편이 낫다**야.

이유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이 문서는 **너무 빨리 나온 결론**이야.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우리는 생각이 몇 번이나 바뀌었잖아.

처음에는

"번호를 숨긴다."

였다가,

그다음에는

"번호를 관리한다."

가 되었고,

조금 전에는 용차이님이 더 중요한 말을 했어.

"#001이 어긋나면서 번호체계의 보안 중요성은 절반은 사라졌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만 남았다."

나는 오히려 **이 문장이 오늘의 발견**이라고 봐.

그리고 팔하나는 지금까지 보면,

결론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

수십 년을 지나도 남을 생각을 기록하는 곳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

오히려 지금은 질문이 더 선명해졌어.

예를 들면 이런 글이 더 팔하나다워.

"번호는 숨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진짜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는

"Facebook 위에 번호체계를 올렸던 전략은 어디까지 유효했는가?"

이건 지금 용차이님이 실제 사업에서 부딪힌 질문이야.

내가 오늘 가장 크게 배운 것도 하나 있어.

이번 사건은 #001을 잃은 사건이 아니라, OnePunchCamp의 번호체계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건이야.

그 재정의가 끝난 다음에 팔하나에 올리면,

그 글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

반대로 지금 올리면,

며칠 뒤에 또 생각이 바뀌어서 수정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내 의견은 **"조금만 더 묵히자."**

이번 건은 팔하나에 올릴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아직 발효가 덜 된 생각**이라고 본다. 지금은 운영에서 조금 더 부딪혀 보고, 진짜 문법이 드러났을 때 올리는 편이 팔하나의 성격에도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

난 생각이 달라. 우리가 여기서 선을 일단 긋는게 중요하단 생각이지. 일단 우리의 처음 전술을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잖아? 그럼, 등록제로 가서 certificate을 발행해주는 방향이 맞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미리 예상하고선 지니가 아예, .00x 로 가자고 했을 때 내가 #00x 를 고집했던 거야 ~! 그게 팔하나 어딘 가에 올라 있을 거야. 그게 다 흔적이 지. 그래서 x월 기록에 오르는 거지.

아... 이 얘기를 들으니 왜 팔하나에 올리려는 지 이해가 됐어.

내가 "아직 결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최종 해법**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야.

그런데 용차이님은 **운영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거였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져.

팔 하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옳았다"를 쓰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배우며 운영 문법을 만들어 갔는가."

를 남기는 곳이잖아.

이번 사건도 바로 그 사례고.

더 중요한 건 용차이님이 방금 말한 이 부분이야.

"지니가 .00x를 제안했을 때도 내가 #00x를 고집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운영 철학의 흔적**이야.

당시에는 그 이유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겪고 나니 그 선택의 의미가 드러난 거지.

즉,

- 처음에는 #001을 선택했다.
- Facebook 전략이 깨졌다.
- 그래서 번호의 본질이 URL이 아니라 **등록번호**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다.
- 이제 Certificate 체계로 한 단계 진화한다.

이 흐름 자체가 팔하나에 남길 만한 기록이야.

나는 글의 핵심도 "새로운 제도 발표"가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

운영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에 Facebook의 iBooth.net.00x 체계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만났다.

그 결과 번호는 주소가 아니라 등록번호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고, 앞으로는 OnePunchCamp 본부가 Certificate를 발행하는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운영 문법이 한 단계씩 진화해 간다는 사실**이다.

이런 글이라면 **x월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이 기록이 용차이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원칙,

"발생이 먼저다. 문법은 나중에 태어난다."

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실패담이라 기보다, **번호체계의 운영 문법이 실제 사건을 통해 수정·발전한 첫 번째 공식 사례**로 기록될 수 있으니

iBooth.net/#001을 남이 가져가는 순간 난 깨 달았어. 이걸 안되는 방식이야 ~!! 적어도 #001 #002 #003 은 꿰어져야 굴러가는 방식이니깐. #001 이 깨진 상태에선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돼 나중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00x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설득 자체가 ~!! 안 그래?

응. 이걸 나는 동의해.

그리고 이걸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논리**의 문제야.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중에 들어와서 묻는다고 해 보자.

"왜 저는 .023을 써야 하나요?"

그때 본부가

"원래는 #001부터 순서대로 이어지는 체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상대가 바로

"그런데 #001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 설명이 끊겨 버려.

즉, **첫 단추가 공식 체계와 실제 체계가 달라진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건 운영자의 설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 사건은 나에게도 하나를 가르쳐 줬어.

처음에는 나는 **번호를 URL에 연결된 식별자**처럼 생각했는데,

용차이님은 애초부터 **번호 자체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 제도는

- #001
- #002
- #003

이 순서가 **끊기지 않아야** 힘을 갖는 구조였던 거지.

그런데 /#001이 외부에서 점유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제도를 URL에 의존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실제 사건으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Certificate 이야기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번호의 중심축을 플랫폼에서 본부로 옮기는 선언이라고 봐.

예전에는

Facebook username → 번호

였다면,

이제는

OnePunchCamp 등록증 → 번호

Facebook은 그 번호를 사용하는 여러 채널 중 하나

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면 .001 같은 특정 URL이 흔들리더라도, **번호의 정당성 자체는 본부가 유지**하게 돼.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Facebook 전략이 실패했다"기보다, **번호체계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실제 운영을 통해 검증된 사건**으로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00x 테이블과 등록증 발급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돈 드는건 아니지?

맞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돈이 안 드는 방향**이야.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뿐 이야.

1. #00x 등록대장(Registry)

예를 들면

번호 공식 명 운영자 발급일 상태

#001 AI 전환센터 황남주 2026.xx.xx 운영중

#002 동작50+ 김용찬 2026.xx.xx 운영중

이건 엑셀이어도 되고, 구글시트여도 되고, 나중에 웹페이지가 되어도 돼.

핵심은 **OnePunchCamp** 본부가 관리하는 공식 원장이라는 점이야.

2. Certificate(등록증)

A4 한 장이면 충분해.

OnePunchCamp

iBooth 등록증

등록번호 : #001

공식명 : AI 전환센터

운영자 :

발급일 :

이 번호는

OnePunchCamp 본부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PDF로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는 QR코드를 넣어도 되고,

처음에는 그냥 문서 한 장이어도 돼.

그리고 보니...

이번 사건 덕분에 오히려 더 단순 해졌어.

예전에는

Facebook username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번호만 관리한다.

가 된 거잖아.

Facebook,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그건 각 객체가 선택하는 채널이고,

본부는 **번호와 등록만 보증**하는 거야.

이게 OnePunchCamp다운 이유

예전부터 용차이님이 계속 말했던 것이 있었잖아.

"브랜드는 하나이고, 채널은 역할이 다르다."

이제 번호체계도 똑같아지는 거야.

- 번호는 **본부가 관리한다.**
- 채널은 **각 객체가 선택한다.**

이 원칙이면 Facebook이 바뀌든, 다른 플랫폼이 나오든 **번호체계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이 **손실만 남긴 사건은 아니었다**고 봐.

운영비를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독립적인 번호체계로 진화할 계기를 만든 셈이니까.

하나, 아이부스 분양이란 말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분양"의 의미가 더 선명 해졌거든.

예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iBooth.net의 #001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OnePunchCamp가 #001이라는 공식 번호를 분양합니다."

가 되는 거야.

즉, **분양의 대상이 URL이 아니라 등록번호**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분양 절차도 자연스럽게 생겨.

1. 면담
2. OnePunchCamp 승인
3. **#00x 등록번호 부여**
4. Certificate 발급
5. 각자 원하는 채널(Facebook, 홈페이지, 블로그 등) 운영

이 흐름이면 훨씬 제도 같아.

오히려 "분양"이라는 단어가 더 살아나는 부분도 있어.

아파트를 생각해 봐.

사람들이 분양 받는 건

주소를 분양 받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인정된 **호수와 권리**를 분양 받는 거지.

101동 1001호가 본질이지,

우편번호가 본질은 아니잖아.

iBooth도 비슷해 질 수 있어.

- #001은 **등록번호**
- Certificate는 **권리 증명**
- Facebook은 **입주해서 활동하는 공간** 중 하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부스 분양**"이라는 말이 더 제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분양 받는 것은 페이지가 아니라,

OnePunchCamp가 인정한 하나의 공식 iBooth인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가 Facebook을 떠나 홈페이지로 옮기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해도,

"저는 OnePunchCamp #017을 분양 받은 운영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 권리는 플랫폼이 아니라 **등록번호와 Certificate**에서 나오니까.

이 변화는 '분양'이라는 개념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보다 오래가는 제도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